

5/31/15

설교 제목: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여호수아 1:1-9

- (수 1:1)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수 1: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 (수 1: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절관주** 신 11:24
- (수 1:4)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 (수 1: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 (수 1: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 (수 1: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 (수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 (수 1: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세계 제 2 차 대전이 막바지로 치달던 1945 년 4 월 12 일 미국인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의 32 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한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앓고 있어 불편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네 번씩이나 대통령직을 연임했던 미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신화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1933 년 그가 미국 32 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 미국은 경제 대공황 상태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었으며, 재임 중이었던 1939 년 2 차 세계 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자 뉴딜 정책을 포함해서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벌여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경제 개혁 등을 감행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회생시켰으며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연합국의 수뇌로서 전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가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이거니와 그중에서도 아무 준비없이 미국 대통령의 육중한 책임을 떠 맡아야만 했던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 받은 충격과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해리 트루먼은 미조리주 출신의 상원의원이었다가 부통령에 지명된 사람이었습니다.

부통령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 그는 외교 경험도 거의 없었고, 루즈벨트처럼 카리스마도 별로 없었던, 그리하여 사람들의 기대나 관심도 받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거한 것이 그가 4 선에 연임되어 취임한지 불과 82일 만이었으니까 트루먼 부통령은 부통령이 된지 불과 82일 만에 생각지도 않게 미국의 33대 대통령을 승계해야 했던 것입니다.

남들은 선거도 안치르고 미국의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었으니 굴러 들어온 복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트루먼 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트루먼이 기자들에게 한 말을 통해 우리는 당시 그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일생에 한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위대했던 전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스트레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33대 대통령직에 오른 후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원자 폭탄 투하 결정을 내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 피폐해진 유럽의 경제 회복을 위해 마셜 플랜을 지원하고, 6.25 전쟁 때는 한국에 미군 파병을 결정하고, 재선까지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 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 1:1)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본문은 이렇게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에굽 왕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어린 시절을 에굽 왕실에서 보냈고, 왕실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며 자랐습니다.

모세는 학문과 법도와 품위면에서 당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후에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비호 아래 당시 최고 권력자(아마 지금으로 치자면 미국 대통령쯤 될 겁니다)였던 애굽 바로 왕과 대적해서 그를 무릎 꿇게 만들어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냈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졌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솟아났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졌으며, 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잘못이 모세에게 있는 경우에도 대놓고 두둔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다른 모든 대 제사장들은 일년에 한번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음에도 모세 그 만은 언제나 수시로 지성소를 들락거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신 그 자리를 맡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아주 어렵습니다.

200 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여호수아의 진두 지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요단강 물은 봄 철이라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물과 늦은 비로 인해 언덕까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물을 갈랐던 사실을 들어 기억하고 한편으로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기적을 일으킬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겪었을 심적 부담이 얼마나 컸을지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경험도 경륜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본문은 그를 가르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지도자가 되고 보니 불안하고 두려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심리적 불안과 부담감을 이미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하리라' 약속하시며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형통하리라!

이 세상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고 듣기를 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형통이란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Prosper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성공, 번창, 부유를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도 일반적으로 형통을 말할 때 부와 성공을 가지고 형통의 여부를 가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형통은 세상적인 부와 성공의 개념을 넘어선 말입니다.

본문에 쓰여진 형통이란 단어는 원어인 히브리어로 사칼인데 그 뜻은 지혜롭다, 총명하다, 통찰력있게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만사형통과는 좀 다릅니다.

1.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하리라고 한 약속의 내용, 즉 무엇을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인지 살펴 보시겠습니다.

1) 네 발바닥이 밟는 곳을 다 주겠다고 하십니다.

(수 1: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수 1:4)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영토로 주었다고 약속한 말을 너희가 믿고 그 곳을 점령하면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너희가 내 약속을 믿지 못해 두려워하여 점령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 영토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을 다 점령하지 않으므로써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2)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수 1: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땅에는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던 원주민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 이겨서 그들을 내 쫓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예굽에서 430 년간 종살이 하다가 나와 광야에서 40 년 헤매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로 살아 왔습니다.

전쟁을 할 만한 무기나 훈련된 병사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병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항할만한 그 어느 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롬 8: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 네 조상에게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수 1: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일관성 있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 17: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에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 1: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수 1: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동안을 참지 못하고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 때문에 진노하시며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내가 이미 약속한 것이니 너희로 하여금 이르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면서 극구 매달려 드디어 하나님의 허락을 이끌어 냅니다.

(출 33:1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 21:22)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 26:28)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창 26:29)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이삭을 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복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 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창 30:27)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창 39: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 39: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도 똑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는 것을 날마다 눈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되는 조건을 거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형통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조건을 거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 줄 것이라고 조건부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 주시는 형통의 조건을 보시겠습니다.

1)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 1: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 것을 지시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가져다 준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며 스스로 백기를 들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불안해 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2) 율법 곧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수 1: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수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8 절 말씀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말씀이 너희 삶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삶으로 구현하라는 겁니다.

말씀은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하고, 지켜 행해만 내 것이 됩니다.
그리하면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3) 세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 굳은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비틀거리는 게 문제입니다. 좀처럼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귀가 엷어 누가 이 말, 저 말을 하면 이리 저리 오락가락 합니다.

자신의 알팍한 생각이 진리인양 따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33 번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딱 한 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21 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